특별기고

주고 싶은 마음의 실천

정 기 연
주필

주고 싶은 마음을 사랑이라 하며 주면서 보람을 느낀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 젖을 주고 싶은 마음의 실천이다. 새들도 먹이를 입에 물고 둥지를 찾아와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 기른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은 이웃에 나눠주고 형제간에도 나눠 준다.

가을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계절이다. 농촌에서는 자기 집에서 생산한 과일을 이웃에 나눠주고 일가친척 집에도 보내는데 요즈음은 택배로 편리하게 보낸다. 농촌에 사는 부모는 생산된 과일, 곡식, 고구마, 참기름 등을 상자에 담아 서울에 사는 자녀의 집에 택배로 보낸다.

택배를 받은 자녀는 받는 기쁨을 느끼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주고 싶은 효심이 발동해 전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녀도 부모님께 선물을 사서 택배로 보낸다. 이처럼 주고 싶은 마음의 실천은 물류를 이동시키며 택배가 사랑의 물류가 오가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주고 싶은 마음을 사랑이라 하는 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부모의 자식 사랑 자식의 부모 사랑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오고 가는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다. 형제가 따로 살고 있었는데 가을 추수를 한 후 형은 동생을 생각해서 볏섬 한 가마니를 아우 집 볏섬 가리에 갖다 올려놓았으며, 동생도 형의 삶이 어려우니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볏섬 한 가마니를 형님 볏섬 가리에 올려놓았다. 이튿날 형제가 볏섬 가리를 세어보니 어제와 같아 같은 생각으로 밤마다 볏섬 가마니를 가지고 오고 가다가 볏섬 가마니를 든 형제가 도중에서 서로 만나 볏섬 가마니를 내려놓고, "형님이었구먼요", "아우였군" 하며 서로 부둥켜안았으며 주고 싶은 마음을 실천한 두 형제를 달님이 웃으며 비춰주었다는 이야기다.

형제의 서로 주고 싶은 마음은 형제의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며 주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도와줄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사랑을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는 것이 효도다. 주고 싶은 마음을 길러 서로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으로 효도하는 자녀로서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이 됐으면 한다.

인간의 즐거움은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베푸는 즐거움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삼락이라 한다. 교육삼락은 아낌없이 주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이다. 따라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나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사람들은 가진 자가 되기 위해 온갖 고생과 노력을 하지만,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도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교육 삼락에서 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교육삼락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며, 준 것을 받은 자는 받은 것을 다시 주는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 사회의 미덕이다.

보람 있는 삶이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며, 내가 가진 것을 많은 사람에게 주고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이차적 목표이고 즐거움이며 보람이다.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진 부자는 일차적으로 성공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람 있게 주면서 즐거움을 느낄 것인가를 실천하는 삶이어야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큰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도움으로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도움을 받았으니 다시 갚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 내가 남을 돕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신 하느님의 뜻이다. 우리는 사랑할 때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한 삶이 된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자.

독자기고

가을철 농촌,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자

정 정 식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언제든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특히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하는 농촌 지역에서도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 동안 농기계 사고는 총 6천366건 발생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1천269건의 사고로 823명이 죽거나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는 점심 이후 긴장이 다소 풀어지는 12시에서 15시 사이에 28.2%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끼임 사고였기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연간 농기계 종류별 사고 발생률은 경운기가 41.7%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이 트랙터 19.1%, 관리기(6.7%)와 예초기(6.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을 수확기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첫째, 농기계 작업을 할 때, 헐렁한 복장은 회전하는 농기계에 말려들기 쉬우니 소매나 옷자락 등이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전체는 되도록이면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회전체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 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도록 하자.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해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을 때는 내려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 후, 주변의 교통상황을 살핀 후 지나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적재함에 수확을 마친 농작물을 과도하게 싣고 이동하면 쏠림 현상으로 위험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사고 당사자인 농업인 뿐만 아니라 가족, 그 주변 사람들까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다. 그런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과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매년 되풀이 되는 수확철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및 농협 등 관련기관이 모두 나서 범 국가적인 농작업 안전 모델을 강구했으면 한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 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 장	이문수				
발행·편집인	이가영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부 사 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